교육협력 추진체계 구축 '속도'

서거석 교육감-정헌율 익산시장, 기초지자체 중 첫 협약 체결… 교육분야 협력행정 강화키로

전북교육청이 지자체와의 교육협력 추진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서거석 교육감과 정헌율 익산시장은 지난 2일 도교육청 5층 교육감실에서 전라북도교육청과 익산시청 간 교육협력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은 전북도·도교육청·대학이 함께한 교육협력 추진체계 구축에 이어 기초자치단체와는 처음으로 진행된 것이다.

이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에게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분야 협력행정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4차산업혁명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교육 현안 해결과 미래교육 기반 마련 및 미래 교육자구 사업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호 교육협력을 전담하는 부서를 두고, 지역교육 현안에 대한 협의, 교육지원청과 연계 협력 등 지역교육협력 활성화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정 시장은 "교육청과 손잡고 질 높은 교육체계를 만들어 교육이 강한 도시로 다시 도약하겠다"면서 "'교육이 강한 익산'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교육청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서 교육감은 "교육의 도시 익산시와 가장 먼저 교육협력 추진체계 구축 협약을 맺어 기쁘다"면서 "우리 아이들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오는 6일 완주군, 김제시 등과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서거석 교육감과 정헌율 익산시장은 지난 2일 도교육청 5층 교육감실에서 전라북도교육청과 익산시청 간 교육협력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완주 봉서초를 찾아서'

서거석 교육감은 2일 완주 봉서초등학교를 방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방역 및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교직원을 격려하고, 학부모들에게 전북교육의 새로운 정책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2023학년도 수시모집… 13~17일

정원 내·외 2708명 선발… 학생부종합전형 면접 폐지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13일~17일까지 2023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주대는 수시모집에서 전체 모집인원 2,800명 중 2,708명(96.7%)을 선발한다.

학생부종합전형으로 917명을 모집하며,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인·적성,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발한다.

학생부교과전형으로는 1,650명을 선발, 모집단위의 계열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반영교과 성적을 산출해 선정한다.

이와 함께 실기·실적위주전형으로는 예체능계열 일부 학과에 한해 141명을 뽑는다.

특히, 올해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면접고사가 폐지돼 학교생활기록부 서류평가로 100% 선발한다. 또한 학생부교과전형에서 진로선택과목 가산점 제도를 신설해 성취도 상위 2과목을 전형 총점에 가산해 뽑는다. 진로선택과목 미이수자 및 검정고시 출신자는 비교내신을 적용한다.

자세한 내용은 2023학년도 수시모집요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대학일자리플러스 협의회 세미나

전라제주권 18개 대학 참여

전주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센터장 이상행)는 1~2일 이틀 간 현대호텔 바이 라한 목포에서 '2022년 전라제주권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고용정보원, 전라제주권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대학과 함께 진행한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고 청년 신규 채용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도움이 되는 주요 청년고용정책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전라제주권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 중인 총 18개 대학의 관계자 및 취업컨설턴트 6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세미나는 8개 대학(광주여대, 군산대, 동신대, 전주기전대학, 제주대, 조선대, 호남대, 전주대)의 우수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각 대학의 진로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한국고용정보원의 컨설팅, 청년고용 대책 수립을 위한 참여대학 간 분임 토의의 순으로 진행됐다.

전주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1~2일 이틀 간 현대호텔 바이 라한 목포에서 '2022년 전라제주권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송호선 전라제주권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협의회장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대학의 청년 특화 원스톱 고용서비스 제공과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우수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전라제주권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대학과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인공지능혁신대학사업단

2차년도 상반기 장학금 지급

전주대학교 인공지능혁신공유대학사업단(단장 고선우)은 최근 사업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2차년도 상반기 장학금 3,2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지원 인공지능혁신공유대학사업은 600억원이 넘는 예산지원을 통해 첨단분야 전문인력양성을 목적으로 2021년 전국 7개 대학을 선정, 이에 전주대학교는 2027년까지 약 9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이번 사업 참여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지난 1학기 사업단에서 운영한 비교과 교육과정과 특강, 팀별 과제 등 프로그램 참여도에 따른 실적을 AI 포인트로 환산 시행했으며, 생활비 지원 형태의 장학금을 최대 118만 원까지 총 52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았다.

인공지능학과 정강현(2년) 학생은 "학과에서 진행하는 여러 프로젝트와 팀장을 맡아 일해야 했기에 힘든 점도 있었지만, 팀원들과 교수님들의 도움이 있어 이룰 수 있었다"며, "여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준 교수님들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고선우 단장은 "인공지능은 첨단분야의 학문이며, 학교 교육에서 이론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실제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교과목 안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에게 전주대학교 안에서 첨단분야에 대한 활동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 박진희·송혜영 교수

학교 감염병 예방 교육자료 개발

우석대학교 박진희(사진 왼쪽)·송혜영 (오른쪽)교수(간호학과)가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감염병 대응 매뉴얼 개정 및 학교 감염병 예방 교육자료 개발 위탁용역 사업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박진희·송혜영 교수는 연구비 5700만원을 지원받아 오는 12월 초까지 감염병 대응체계 범위의 확장과 감염병 대응조직의 강화, 학교 현장에서의 적용 및 활용 등에 대한 매뉴얼 개정과 교육 자료를 개발할 예정이다.

사업 책임자인 박진희 교수는 "신종 및 재출현 감염병 유행에 따른 대응 매뉴얼 개정 및 학교별 수준에 맞는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교수는 코로나19 대학 일상회복지원단에서 종합상황실장을 맡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 중등학생 미술실기대회 개최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에서 8일 진행

'2022 전북중등학생 미술실기대회'가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에서 열린다. 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잠재적 소질을 계발하고, 미술 분야의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대회 일정을 분리해 진행된다. 먼저, 3일에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실기대회가 펼쳐진다.

참가 학생들은 전체 집합 없이 종목별로 지정된 장소에서 오전·오후로 나눠 경연을 실시한다.

고등학생 실기종목은 소묘, 한국화, 문인화, 수채화, 유채화, 판화, 만화, 기초디자인, 사고의 전환, 발상과 표현, 조소, 서예 등이며, 중학생 실기종목은 소묘, 한국화, 문인화, 수채화, 유채화, 상상화, 판화, 만화, 예쁜손글씨, 조소, 서예, 도자공예 등이다.

시상은 종목별 참가학생의 비율에 따라 금상(10%), 은상(20%), 동상(30%)를 수여한다. 입상 실적이 있는 학교의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우수 지도교사도 시상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밖 교과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 학생들의 예술적 재능이 맘껏 발휘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면서 "미술에 소질이 있는 학생들이 창의성을 기르고 진로를 탐색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학생이 참가하는 대회는 오는 8일 실시될 예정이다.

/장은성기자

교권이 탄탄한 학교문화 본격 조성

도교육청, 교권 침해 예방 공청회 개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교권이 탄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5일 오후 2시 전주비전대학교 비전컨벤션홀에서 '교권침해 예방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교육주체들의 인권이 함께 존중받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학생인권조례'는 '전북교육인권조례'로 확대 개정하고,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전북교육인권센터'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서거석 교육감의 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공청 회에서는 한국교총 김동석 교권본부장이 발제자로 나선다. 토론자로는 전북교총 오준영 정책연구위원장, 전교조 전북지부 김재욱 전주지회장, 전북교사노조 장세린 대변인 등이 참여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우리교육청은 부당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체계를 확립해 교권을 탄탄히 하고자 한다"면서 "교권침해 예방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청회에 관심있는 교원은 누구나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1일 본청 1층 늘품자리에서 전북학생의회 출범을 위한 교육감·학생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학생의회 설립 취지 설명

서 교육감, 학생들과 간담회 열어… "학생들이 직접 정책 제안·검토·심의하는 것까지 맡아"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1일 본청 1층 늘품자리에서 전북학생의회 출범을 위한 교육감·학생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전북학생의회 설립 취지와 추진 방향을 정확히 설명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하는 서 교육감의 의지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학생위원들은 교육감에게 학생의회와 학생참여위원회가 어떻게 다른지, 학생의회의 권한과 역할은 무엇인지, 학생의회가 언제부터 활동하게 되는지,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서 교육감은 학생위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해 일일이 답하며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서 교육감은 "학생을 위한 교육정책을 만들 때는 학생이 직접 참여해야 하는데, 기존의 학생참여위원회는 학생인권에 관련된 정책에만 참여했다"면서 "전북학생의회는 학생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검토·심의하는 것까지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의 한 주체인 학생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정책에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 학생의회준비소위원회에서 학생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운영 규정 마련에 적극적인 의견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학생의회준비소위원회는 제9기 전라북도학생참여위원회 위원과 제19대 전라북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학생의회추진단 등으로 구성됐다.

/장은성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